

KOB A 2019

전시업체 Interview

정리.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 방찬호 방송과기술 편집위원

Canon _ 고영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부장



올해 KOB A 컨셉과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올해 KOB A 캐논 부스는 고객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1:1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프로 영상장비 전시뿐만 아니라 브이로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니즈가 있는 일반인들도 원하는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제품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캐논 부스에 전문 상담원이 배치돼 방문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4K/UHD를 지원하는 캠코더를 대거 출시했는데, 관련 전략으로는?

최근 유튜브 열풍으로 4K 영상 대중화 및 5G 시대의 개막에 맞춰 고화질 4K 캠코더가 출시되었습니다. 캐논은 카메라 시장에서 16년 연속 1위를 이어온 리딩 브랜드로서, 사진과 영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 시장 상황에 따라 사진은 물론 영상 시장에서도 캐논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렌즈교환식 카메라 제품과 캠코더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영상 장비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도 캐논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PS 라운지(Canon Professional Service)를 통해 고객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는지요?

CPS 부스는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프로 제품의 사용 및 구입, 유지 보수에 대한 맞춤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캐논의 프로 지원 활동이자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 관리 노하우부터 신제품의 구매 가이드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시네마 EOS 제품군과 캠코더 제품군의 차이점에 관한 문의도 많았는데, 영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인 방송을 위한 제품에서도 캐논의 제품이 많이 선호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캐논의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익숙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캐논의 사진 장비에 익숙했던 고객들이 영상장비를 구매할 때에도 익숙한 캐논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캐논의 영상 제품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캐논 카메라에 익숙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영상 촬영을 위한 기기로 캐논 카메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메라 시장과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카메라의 정의가 달라지면서 사진과 영상의 구분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캐논의 전문 영상장비인 캠코더와 시네마 EOS 라인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EOR R/RP의 출시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판매 및 소비자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 R 및 EOS RP의 가장 큰 장점은 캐논이 보유한 약 80여 종의 EF 및 EF-S 렌즈군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기존 캐논 유저들의 경우에는 원래 사용하던 렌즈를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와 마운트하여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캐논의 고사양 프리미엄 렌즈부터 단초점 렌즈, 망원 줌렌즈 등 다양한 렌즈군과 호환이 가능해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표현력을 높이고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선보이는 RF 렌즈 라인업은 RF 28-70 F2 L USM, RF 85mm F1.2 L USM, RF 50mm F1.2 L USM에서 살펴볼 수 있듯 최상의 화질을 추구합니다. EOS R 시스템을 위한 RF 렌즈 라인업이 연내에 총 10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고객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방향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영상장비를 사용하는 유저를 타깃으로 캐논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1인 미디어 패키지 등을 선보이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캐논의 가치를 전달하고, 초보자들도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 영상장비를 다루는 프로 유저 타깃으로는 5G와 UHD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최신 영상 솔루션과 이미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4K 시네마 EOS, 프로 캠코더 등 캐논의 4K 제품라인업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나아가 방송 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캐논 BCTV 렌즈의 4K 라인업이 완성되어 향후 4K 방송 전환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되고, 4K 레퍼런스 디스플레이 등 최신 규격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을 방송 업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rass Valley _ 인기한 삼아지브이씨/삼아디엠에스 대표

올해 KOB.A 컨셉과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Grass Valley는 NAB 2019에서 소개된 새로운 개념의 Camera Creative Grading 콘트롤판넬과 e-Sports 워크플로우를 중심으로 IP와 12G-SDI의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전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KOB.A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Camera OCP는 색상 조정을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업계 최초, 신개념 콘트롤 판넬입니다. e-Sports 워크플로우는 Grass Valley의 라이브제작 시스템(4K LDX86n UHD 카메라, Kula 스위처, Live Touch 비디오 서버, K2 CAMP 서버)과 그래픽 솔루션을 통합한 제작환경이며, 이 밖에 UHD 마스터 스위처, GV Node, IP 멀티뷰어, Kahuna 스위처, GV Stratus One 소규모 미디어통합 솔루션, EDIUS Cloud 솔루션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IP와 12G-SDI를 지원하며 확장성을 높였는데, 앞으로 UHD 전송의 방향으로는?

IP와 12G-SDI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IP 기반의 시설들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P 기반의 인프라는 지속적인 I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개선된 경제성과 편리성 제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편하게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Sports 관련 4K UHD 라이브 제작 워크플로우 소개

Unreal 방식의 그래픽을 가미한 e-Sports 제작 솔루션은 기존의 그래픽과 방송 영상의 조합이라는 부분을 넘어서 VR/AR의 조합이라는 부분까지 발전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세트에서 구현하기 힘든 부분을 그래픽으로 진행한 이후에 플레이어들의 현장감과 더불어 플레이어들이 보는 화면들을 다양한 그래픽 해설을 통하여 시청자들이 전지적인 시점에서 전반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관점이라 할 수 있으며, Grass Valley의 LDX 86N 카메라 (HD/UHD/슈퍼슬로우모션)와 Kula 스위처, LiveTouch 서버, K2-CAMP 서버와 함께 Zero Density 그래픽 솔루션이 부스에 설치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방향은?



아시다시피, Grass Valley는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UHD 전환이라는 요구사항에 맞는 end-to-end 토탈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장비 및 솔루션 공급업체이며, 총판사인 삼아는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대응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KOBA 전시장에서 소개드린, e-Sports 솔루션뿐 아니라, 원격 제작 워크플로우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소개하고, 대한민국 방송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Media Links/Harmonic _ 황인 아이젠시스템즈 CTO



안상용 아이젠시스템즈 대표(좌)
황인 아이젠시스템즈 CTO(우)

올해 KOBA 컨셉과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디오 포맷이 HD에서 UHD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고전적인 SDI 방식으로는 방송 시스템을 설계하기에 벅찬 상황이라 필연적으로 Video Over IP, Audio Over IP로의 여러 표준 규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격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신기술들과 여러 제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Media Links 솔루션의 특징과 현황은?

전 세계 IP 솔루션 규격의 선두 주자이면서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특화된 여러 솔루션을 보유 한 회사이고, 이미 10여 년 전에 전 세계 처음으로 방송용 IP 라우터를 개발해 후지 텔레비에 납품한 기술력을 바탕

으로 100G 방송용 비디오 스위치 MDX 48X6C, 12G-SDI를 TICO로 변환해 10G 망으로 송출하는 MDP 3040, HD 및 UHD를 JPEG2000으로 송출하는 MDP 3020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Harmonic 제품의 경우 가상화와 클라우드가 특징인데, 앞으로의 제품 개발 방향과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시장 플랫폼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어 방송 클라우드의 노하우를 이어가는 가상 케이블 솔루션인 Harmonic CableOS Solution을 개발해 이미 NCTC(National Cable Television Cooperative) 멤버들에게 소개하고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방향은?

CANON 방송 렌즈의 한국 총판권 및 미디어링크 한국 총판권 획득을 계기로 사업영역이 하모닉 전문 회사에서 방송 통신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한국 내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전문 회사로서의 입지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WO _ 장경원 동양디지털 부장

올해 KOB.A 컨셉과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IP 기반 방송제작에 대한 기본개념과 예상되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제작 전체가 IP로 전환 될 수도 있지만 그전에 현재의 Baseband(HD, 3G)와 12G가 당분간 혼용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제작시설까지 10G 이상의 비압축신호 전송을 통해 제작을 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LAWO의 제품과 솔루션의 장점이라면?

IP 기반의 방송제작시설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Hardware 플랫폼으로 다수의 Application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MATRIX가 있습니다. Up/down Converter(SD-UHD), FS, Multi-viewer 기능들을 Software 구동합니다. 또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ntrol system인 VSM이 있습니다. Routing을 포함해서 방송제작장비들을 통합제어 하는 System control이며 Software 기반이라 아주 유연하게 Customizing을 할 수 있습니다.

IP 기반 방송제작이라면 VSM 역할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udio 제작용 console도 독보적인데 TV, 공연용으로 mc36, mc56, mc96이 있고 radio용으로는 Ruby, Crystal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radio console들은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맞추어 Graphic user interface를 디자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AoIP 기능을 지원합니다.

VoIP/AoIP와 같이 IP 관련 제품이 대세로 상기 시 되지만 아직 가격이 높은 편인데, 언제쯤 가격 안정기가 찾아올 거라 예상하시는지요?

IP 관련 제품 자체들은 개별적으로 Baseband 제품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디오 Console의 경우 IP로만 연결된다면, Analog나 Digital interface가 줄어들어 오히려 가격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대역폭을 지원하는 Network 장비들이 아직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IP 제작이 활성화되어 많은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방향은?

앞으로도 IP 방송제작을 염두에 두고 기술과 제품소개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미 IP 방송제작은 반드시 온다고 예상이 되기에, 본격적으로 IP 방송제작 활성화 전에 실제 장비운용 등을 고객들에게 직접 소개하면서 미리 적응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니코리아 XDCAM Air Cloud _ Kihara, Yuya



변상혁 소니코리아 PS 사업부 마케팅 부장(좌)
Yuya Kihara 소니 본사 PS 사업부 솔루션 플래너(우)

XDCAM air Cloud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XDCAM Air는 클라우드 기반의 무선 영상 전송 워크플로우로써 주로 뉴스 프로덕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입니다. LTE나 와이파이 가 탑재된 캠코더와 스튜디오 사이에서 라이브 영상 또는 파일을 전송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역시 XDCAM Air에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스트리밍과 파일 기반의 워크플로우가 동시에 가능하여 용도에 따라 각각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프로덕션의 Adobe Premiere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편집이 가능하며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웹 기반의 스토리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의 무선 워크플로우 솔루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LTE 백팩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이 있지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트랜스미션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소니의 무선 워크플로우 솔루션은 캠코더에서 관련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XDCAM Air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장비 자체에 액세스가 가능하므로 영상 파일을 선별하여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과 파일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XDCAM Air Cloud가 실제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대형 그룹의 방송사에서 XDCAM Air를 스트리밍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PoC(Proof of Concept)를 통해서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파일 형식으로도 전송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유럽에서도 공영 및 국영 방송사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방송사에서 XDCAM Air를 위한 PoC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XDCAM Air는 2018년 NAB를 통해서 처음 소개되어 북미 지역에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KOBA 2019 Show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XDCAM Air의 출시 계획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방송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XDCAM Air는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번 KOBA 2019 Show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PoC, BMT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XDCAM Air의 컨셉이 고객들에게 환영받게 된다면 2020년에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G 시대에 무선 워크플로우 솔루션의 향후 전망과 Sony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향후 5G 시대에는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정렬화되기 때문에 고해상도 영상을 바로 전송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다양한 편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에 뉴스뿐 아니라 스포츠 같은 라이브 현장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무선 워크플로우가 적극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HD 기반의 무선 브릿지 솔루션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마도 1~2년 후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편집이 요구될 것이며 고객들의 잠재적 수요에 따라 검토되어 개발될 것입니다.

▶ Blackmagicdesign _ 신상훈 Country Manager(Korea) ◀

올해 KOB.A 컨셉과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올해 KOB.A에서 저희 블랙매직디자인은, 기존 4K/UHD 제품 라인업에서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을 뿐만 아니라, 8K 영상에 대한 녹화/재생 및 믹싱까지 가능한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HyperDeck Extreme 8K HDR은 첨단 H.265 8K 녹화 기능과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혁신적인 방송용 테크입니다. 이는, 기존 HyperDeck 라인업의 검증된 안정성에 H.265 녹화/재생, 퀵 링크 12G SDI 입/출력, 내부 캐시 옵션, 3D LUT, HDR 지원 등의 획기적인 신규 기능을 더한 제품입니다. 아울러, HyperDeck Extreme Control을 추가하면 업계 표준 RS-422 프로토콜을 통해 최대 8대의 테크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기존 테이프 기반의 워크플로우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ATEM Constellation 8K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UHD 라이브 프로덕션 스위처로서, 퀵 링크 12G SDI 구성을 통해 8K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UHD 환경에서는 4M/E 구성, 40개의 12G-SDI 입력, 24개의 12G-SDI 출력, 4개의 DVE, 16개의 키어, 4개의 미디어 플레이어, 4개의 독립된 멀티 뷰어, 2개의 SuperSource, 모든 SDI 입력에서 스케일링 지원 등 ATEM 스위처 라인업에서 가장 많은 기능 사양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래그쉽 모델입니다.

Teranex Mini SDI to HDMI 8K HDR은 퀵 링크 12G SDI를 퀵 링크 HDMI로 변환하여 8K 디스플레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해 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정확한 색상을 구현하는 전문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듀얼 온스크린 스코프 오버레이, HDR, 33 포인트 3D LUT,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Davinci Resolve의 새로운 버전인 16을 통해, 짧은 마감시간 내에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편집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혁신적인 컷 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였고 있습니다. DaVinci Resolve 16에 새롭게 탑재된 DaVinci 뉴럴 엔진은, 최첨단 딥 러닝 기술과 인공 지능을 사용해 Speed Warp 모션 예측, 영상 업스케일링 Super Scale, 자동 색상 보정 및 색상 매칭, 안면 인식 등의 신규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 편집자와 컬러리스트, VFX 아티스트, 사운드 엔지니어를 위한 수십 가지 이상의 신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1인 미디어 제작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형 카메라(Blackmagic Micro Studio Camera 4K 등), 모니터 겸 녹화기(Blackmagic Video Assist), 스트리밍 지원 기기(Blackmagic Web Presenter) 및 소형 믹서(ATEM 스위처) 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에서 플래그쉽 모델인 URSA Mini Pro 4.6K의 후속 모델로서 전반적으로 향상된 센서 및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고속 촬영 기능 등을 지원하는 URSA Mini Pro 4.6K G2와 출시 후 줄곧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Blackmagic Pocket Cinema Camera 4K(BMPCC 4K)도 선보였으며, Blackmagic Design의 RAW 기반 첨단 신규 코덱인 Blackmagic RAW에 대해서도 별도의 발표 세션을 마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블랙매직디자인은 NAB에서 8K 지원의 HyperDeck 등을 선보였는데, 제품에 대한 호응은 어떠한지요?

기존 제품 대비 HD/UHD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고, 기존 제작 현장에서의 사용자 요청 사항들도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8K까지 대응이 가능하고, 또 이를 체험 가능하도록 실제로 시연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블랙매직은 6G, 12G를 메인 전송 방식으로 채택했는데, IP 지원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면?

블랙매직디자인은 항상 많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며 통일된 규격이 채택된 기술들을 제품에 적용해 왔습니다. IP 관련해서도, 이미 2016년 TICO Alliance 가입을 발표하였고, 현재도 일부 제품에 해당 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켓카메라의 인기가 매우 높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제품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랙매직의 장점으로는 경제성 있는 가격과 품질인데, 이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은 어떠한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영상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영상 산업이 진정한 창조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기업 이념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블랙매직 디자인 제품들이 관심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방향은?

늘 그랬듯, 현장에서 사용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보다 나은 제품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Vlogic _ 신수근 비덴트 전무이사

올해 KOBA 컨셉과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이번 KOBA에서는 새로운 F 시리즈 2종 이외에 IS-mini 4K 및 NPS-10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새로워진 티브이로직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필드 모니터 신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필드 모니터 zone을 확대하였으며, 실시간 디지털 컬러 조정 장치인 IS-mini 4K 시연 zone과 휴대용 백업 장치인 넥스토디아아 제품 전시 zone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종합방송장비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티브이로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기획하였습니다.



Mitsuhiro Uchida 비덴트 개발2팀 이사(좌),
신수근 비덴트 전무이사(우)

티브이로직의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3,600 니트의 초고화도를 지원하는 신제품 7인치 필드모니터 F-7H mk2는 지난해 티브이로직에서 출시한 F-7H의 후속 모델로, 샤프니스(Sharpness)기능 및 피킹 부스트(Peaking Boost) 기능을 더해 전작보다 선명하고 풍성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크린 전면부에 4개의 프리셋 기능을 저장

할 수 있는 터치 아크릴 필터를 적용하여 한번의 터치로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제품 F-5A는 5.5인치 FullHD 모니터로 약 420g의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소니 배터리용 브라켓을 내장하고 있어 이동이 많은 촬영현장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샤프니스 기능과 피킹 부스트 기능이 탑재하여 선명도를 높였습니다.

두 제품 모두 PQ, HLG, SLog3 등의 HDR 표준을 지원해 실제에 가까운 생생한 색을 재현하며, HDMI ↔ SDI 변환 출력, Waveform/ Vectorscope, Focus Assist, Marker, Audio Level Meter, Camera LUT(Log-C, C-Log, S-Log1/2/3, Red Gamma3/4), ARRI Metadata Display, 3D LUT import, H/V Flip, Auto Flip 등 필드 촬영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IS-mini 4K와 넥스토디아이의 제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IS-mini 4K는 12G-SDI 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4K/UHD 영상의 컬러를 실시간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로, 촬영 현장, 방송국, 후보정(Post Production) 등 모든 영상 제작 현장에서 장치 독립적으로 일관된 컬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성능의 FPGA와 CPU를 기반으로 12G/6G/3G-SDI 입출력과 HDMI 2.0 출력을 지원하여 4K/UHD 영상의 컬러를 실시간으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12G-SDI 변환출력 및 12G-SDI By-Pass 출력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한 대의 IS-mini 4K만으로 HDR 및 SDR 출력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거나 색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컬러 관리 소프트웨어인 WonderLook Pro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촬영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정확한 컬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브이로직의 패밀리 브랜드인 넥스토디아이의 휴대형 백업 저장장치 신제품 NPS-10 역시 티브이로직 부스에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NPS-10은 별도의 외부 전원이나 컴퓨터 없이 메모리카드의 콘텐츠를 내장 드라이브에 백업해 주는 백업 저장장치로, 약 200g의 가벼운 무게에 배터리로 동작해 휴대가 용이합니다. 지원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XQD/CFexpress, CFast, CompactFlash(CF)의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모델에 공통으로 두 개의 SD 슬롯과 한 개의 MicroSD 슬롯과 2.4인치 LCD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 컴퓨터 없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백업이 가능하며, 백업된 콘텐츠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스토디아이의 독자기술인 엑스카피(X-Copy) 기술과 최신 인터페이스 규격을 적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350MB/s의 백업 속도를 지원합니다. 최신 USB-C 단자를 탑재해 호환성을 높였으며 휴대폰 충전기, 휴대용 배터리팩 등을 통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고 내장 SSD(또는 HDD)는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사실상 용량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NAB에서 Tvlogic 신제품의 반응과 인기는 어떠했는지요?

지난 NAB에서 티브이로직 신제품 7인치 필드 모니터 F-7H mk2가 TV Technology로부터 'NAB Best of Show' Award와 Post Magazine으로부터 'Post Picks' Winner로 선정되는 등 2개의 상을 받고, 4K 디지털 비디오 컬러 조정 장치인 IS-mini 4K도 TV Technology로부터 'NAB Best of Show' Award를 수상하는 등 티브이로직의 신제품들이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F-5A의 광고 문구가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F-5A는 컴팩트하고 슬림한 디자인에 소니 배터리용 브라켓을 내장하고 있어 이동이 많은 촬영현장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다양한 전문가용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동급 모니터 대비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가성비를 높인 제품입니다. 또한 F-5A는 방송 전문가 외에도 유튜브, 브이로그 등 1인 미디어 고객들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고객 타겟층이 넓은 제품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들 누구나 편하고 쉽게, 부담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왔습니다'라는 문구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3월에 대주주가 한국 투자사로 바뀌면서 사명도 비텐트로 바뀌었습니다만, 일부 경쟁사의 악의적 거짓말로 인해 아직도 '중국자본'이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희 비텐트(TVLogic, NextoDI)는 한국 자본으로 한국에서 개발과 생산을 하고 영업과 서비스를 하는 세계 2위의 방송용 모니터 제조업체입니다.

방송용 모니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Tvlogic의 전략이 있다면?

방송장비 시장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1인 미디어 시장의 성장에 따른 제작 환경의 변화와 전통적인 영상 제작 주체(방송사 등)의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방송용 모니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듯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HDR, 4K/UHD 등 최신 기술을 지원하는 레퍼런스급 모니터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카메라의 경량화에 따라 5.5인치급 필드 모니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티브이로직은 HDR 등 다양한 고급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필드 모니터 제품군을 확대하여 시장의 트렌드를 리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방향은?

티브이로직은 지난해부터 주력상품인 방송용 모니터 외에도 넥스트다이아리 백업 장치, 실시간 컬러 조정장치인 IS-mini 시리즈 등 다양한 방송 관련 장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영업적인 시너지 이외에도 생산과 개발에 이르는 혁신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로직은 이외에도 다양한 방송장비 관련 업체와의 기술 제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송장비 라인업을 구축하여 종합 방송장비 제조업체로 성장해갈 계획입니다.

Ikegami _ 박용석 동화AV 대표



올해 Ikegami 전시의 컨셉과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이번 KOBAS 2019 SHOW에서 HD 및 UHD 카메라와 TV방송사, 네트워크 및 기타 HD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생산장비의 선두 주자인 Ikegami는 4K/8K/IP 및 HDR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4K 카메라를 소개할 뿐 아니라 CCU-430용 MoIP 인터페이스를 선보였는데, Real 플러그인 모듈은 12G/3G 또는 1.5G-SDI 출력과 함께 25G 또는 듀얼 10G IP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밖에 4K와 8K를 지원하는 카메라의 특징은 어떠한지요?

스튜디오 및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UHK-430 및 UHK-435는 리얼 4K에서 Ikegami의 뛰어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RGB 프리즘 옵틱스가 있는 2/3인치 4K(3840×2160) 3-CMOS 센서, 2400만 픽셀(센서당 800 만)의 Real 4K 해상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 공사(NHK)와 협력하여 개발된 SHK-810은 상당한 크기의 획기적인 초고화질 TV(UHDTV) 카메라로서 축소 및 경량 설계로 현장 방송 및 라이브 프로덕션에 제공되며 현재 방송 카메라와 동일한 용이성으로 작동합니다. SHK-810은 3,300만 픽셀의 Super 35mm CMOS 센서와 PL 렌즈 마운트를 사용하여 수평 해상도를 4,000 TV 라인으로 제한합니다. 이 휴대용 카메라는 헤드와 CCU 사이에 표준 SMPTE 하이브리드 카메라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용 및 스튜디오 뷰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K-810의 영상은 Ikegami가 설계한 55인치 풀 8K 해상도 LCD 모니터의 프로토타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방향은?

동화AV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Ikegami 카메라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고객분들의 고견을 듣고, 본사와 빠른 소통을 통해 서비스와 기술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화AV 부스를 찾아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Grass Valley, harmonic, ADDER, mo-sys _ 김승언 재인엠엔씨 대표 ▶

**올해 KOB.A 컨셉과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올해 재인엠엔씨의 KOB.A 컨셉은 Simple & Smart입니다. 전시회 기간 중 Grass Valley, harmonic, ADDER, mo-sys 4개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하였습니다. 브랜드별로 전시 내용을 설명드리면, Grass Valley의 UHD/IP를 위한 Module, Playout, Monitoring, SAM과 합병으로 Sirius, Masterpiece, IQ module을 전시하여 송출 및 모니터링 부분에서 보다 강화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harmonic은 기존 SpectrumX 서버를 통한 UHD Playout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송출, 그래픽, 스케줄링이 가능한 VOS 360을 실시간으로 AWS S3에 접속하여 시연하였습니다. 또한, IP KVM 솔루션인

ADDER의 4K, Dual-head가 가능한 Infinity 4000과 함께 FHD가 가능한 ipeps+, Extender를 전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o-sys의 Startracker를 통해 VR/AR 환경을 위한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harmonic 제품의 특징 소개와 클라우드 및 UHD 지원 현황으로는?

기존 SpectrumX를 토대로 이미 지상파에는 UHD 송출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송출을 대비하여 VOS 360 기반의 SaaS 서비스를 탑재한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 Hardware 공급 방식에서 Software license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나날이 변해 가는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CAPEX/OPEX를 줄일 수 있도록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기에 출시 예정인 New SpectrumX를 통해 기존 UHD 송출을 위한 Quad 3G 방식에서 SMPTE2110 / IP 방식의 새로운 서버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mo-sys 관련 세미나를 통해 제품 소개를 했는데, mo-sys에 기대하는 부분으로는?

가트너(GARTNER)가 선정한 2019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중 몰입경험(immersion experience)을 위해 해외 방송사에서는 AR/VR 관련 기술의 상용 보편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 역시 AR/VR 기술의 향상 및 Quality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단발성 제작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여러 방안으로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에 발맞춰 저희 재인엠엔씨는 Camera Tracking 솔루션을 제안, 좀 더 쉽고 빠른 AR/VR 제작기술을 제공하여, 이벤트성 AR/VR 제작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P 전송의 표준이 완성되고 있는데, 국내 UHD 방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지상파 KBS, MBC, SBS 3사가 UHD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점차 여러 방송국 관계자들이 UHD 방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SDI 방식을 이용한 HD 방송이었다면, 앞으로는 IP/SMPTE 표준 정착과 함께 UHD에 대한 관심과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해 UHD 방송 및 많은 서비스가 활성화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 및 사업 방향은?

기존의 Grass Valley, harmonic을 주축으로 ADDER, mo-sys 등 사용자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한 고객 관리와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고객과 함께 호흡할 것입니다. 특히 KOB.A에 처음 선보인 카메라 트래킹 솔루션인 영국 mo-sys의 Startracker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VR/AR이 필요한 스튜디오, e-Sports, 교육기관, 공공미디어센터 등에서 향후 면밀하게 검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